베이비부머세대의 성공적 노화 : 중산층을 중심으로*

Successful Aging of the Middle-class Baby Boomer Generation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성희"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곽 인 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begin{array}{ccc} Professor & \text{Hong, Sung-Hee} \\ \text{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ersity} \\ Professor & \text{Kwak, In-Suk} \end{array}$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연구내용
Ⅱ.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Ⅲ.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baby boomers' perception of and preparation for their successful aging. Seven women and three men were interviewed with the use of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Their perceptions of their likelihood of future successful aging were not negative, and were influenced by a range of considerations that included health, leisure, finance, volunteer services, family relationships, and elderly life without children's supports. They tried to prepare several kinds of sports, leisure activities, and volunteer services for their elderly life. However, their reasons for preparing these activities varied, and the background of their differences consisted of the family background, personal values, and experiences. Moreover, men and women responded differently to their personal experiences as they related to their elderly life. Women were likely to match their family relationship with their perception and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and men were not.

Key Words : 베이비 부머 (baby boomer),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 노후준비 (preparation for aging)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 홍성희 (hsh@kmu.ac.kr)

^{***} 교신저자 : 곽인숙 (kwak1526@yahoo.co.kr)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작 연령인 1955년 출생자가 2010년에 일반적인 정년 연령인 55세에 이르면서 이들의 은퇴와 노후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 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전체 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현재 약 14.6%에 달하 는 712만 명으로(통계청, 2010), 수적으로 우세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기대수명 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점 이다. 1954년생 남자의 39.6%, 여자의 46.2%가 98 세까지 생존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100세 시대'는 은퇴 후 생애주기가 길어질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기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조선일보, 2011. 1. 3.).

베이비부머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경제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가족주기 상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시점에 있어 최대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또 글로벌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불안정 고용 증가와 이에 따른 비자발적 은퇴가 확산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에 기초해왔던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기획이 타격을 받게 된다(한경혜, 2010). 이와 같이 사회적, 개인적으로 불안한 경제적 상황이 베이비부머의 노후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킨 것으로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49.2%에 불과하며, 공무원 등 특수연금가입자를 포함해도 54.5%만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수 있고, 또 반더라도 평균 수령액이 45만 8천원에불과하다(조선일보, 2011. 11. 28일자). 또한 아직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은퇴연령은 65.5

세이지만 은퇴자의 평균 은퇴연령은 60.7세로, 실제 은퇴연령이 예상은퇴연령보다 다섯 살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0). 이러한 통계자료와 보도내용은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노후준비의미흡으로 미래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따라서 경제적 준비 없이 닥친 '100세 시대'가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보다는 공포로 받아들여지고있으며, 장수리스크가 건강리스크, 자녀리스크, 물가리스크와함께 노년기의 새로운 문제이다(조선일보, 2011. 12. 31일자).

반면 여전히 이들의 고용율은 75%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삼성경제연구소,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다소 긍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2010)의 생활실태 조 사에서는 2010년 2월 말 현재 베이비부머의 총자 산이 3.3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자 산보유액 2.7억 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의지 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를 의식하며, 노후준비를 서둘러 계획하여 노후소득이 보장된 일부는 노년 기에 유력한 소비층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 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빠르고 다양한 시대적, 사 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전통과 현대, 변화와 안정 이 혼재된 가치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은퇴와 노 후준비에 대한 상황도 이전 노인과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집단 내에서도 개인의 사 회문화적 경험과 가족구조, 가계상태에 따라 이질 성이 존재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부정적인 노후 전망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되는 양적 지표와 동시에 긍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상반된 전망은 미래에 펼쳐질이들의 삶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즉, 베이비부머 개개인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려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특히 그들이 소망하는 잘 늙는 것, 즉 성공적 노화는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걱정하는가와 같은 의문이 그들의 성공적 노화에 접근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미국에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전 생애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삶에 잘 대처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상실과 저하의 시기로 보았다면, 성공적 노화의 패러다임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고 노년의 잠재력을 높이며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둔 예방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한경혜, 2000).

길어진 노년기의 문제는 노인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는 과거의 노인에 비해 건강과 높은 교육수준, 경제력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노년기를 자녀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정경희 외, 2010) 성공적 노화는 장수시대를 살아가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삶의 목표로서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가 앞으로 맞이할 노후에 대해 성공적 노화의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부모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에서 형성된 세대적 특징을 그들의 생각과 언어로부터 포착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집단 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지위를 '중간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61.6%로 전체 가구주(57.6%)보다 높게 나타난 것(통계청, 2010)이나 베이비부머의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압축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정경희외, 2010)라는 점에서 중산층에 속하는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하였다.

중산층은 객관적으로 일정한 교육수준과 소득, 안정된 직장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정도, 직업과 종사상의 지위나 주택의 수준 측면에서 개 인 및 가구들 간의 차이가 크며, 의식과 행동양식 에서도 편차를 보이는 집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홍두승, 2005). 따라서 중산층 내에서도 개인의 과 거 경험과 환경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해 서로 상이한 의식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가 인식하는 성공적 인 노화란 무엇인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어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가의 연구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사례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사례의 특성과 연구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기술에서 나타난 개인차와 특성을 밝히기 위해 대조적인 두 쌍의 부부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 사례에서 밝혀진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노후준비의 배경이 되는 개인적 경험과 의식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내리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황과 전망

베이비부머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나 이들이 사회 변화의 격동기를 살 아오면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노인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현재 자신이 구축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래의 노후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더욱이 마땅한 대안도 없다. 2009년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10명 중 4명은 연금이 유일한 노후준비이며, 심지

어 10명 중 2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그러므로 베이비부머 세 대가 느끼는 불안한 노후는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전망에 대해서는 노 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유자산이 충분하지 않 아 은퇴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전 망을 뒷받침하는 지표로서 삼성경제연구소(2010) 의 분석자료에서는 자산 구성 중 실물자산 구성이 높으며(76.8%), 금융자산은 전체 자산의 16.3%에 불과했다. 또 석재은과 이기주(2010)의 조사에서 밝혀진 베이비부머의 연금 가입수준은 무연금상태 가 전체의 56.7%였고, 취업자 중 45.2%, 비취업자 의 79.2%가 무연금 상태였다. 또한 공적연금, 퇴직 금 및 개인연금의 3층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 우는 전체의 2.4%에 불과해, 은퇴에 직면한 베이 비부머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3층 연금보장체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베이비부 머들 개인적으로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이 빨라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재취업을 해야 하는 것(방하남 외, 2010)도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반면, 이와 같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시장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하였다. 백은영(2011)은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 대상자 중 베이비부머 6,905명의 은퇴준비를 분석한 결과 약 80%의 베이비부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가 상당히 미흡할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보다 높은 수치라고 해석하였다. 주된 은퇴준비방법으로는 38.9%가 국민연금이며, 기타 공적연금을 포함할 경우에도 46.1%로, 의무 가입이 대부분인공적연금을 통한 준비가 다수를 차지하여 적극적

인 방식으로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베이비부머세대의 문제를 먼저 경험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도 베이비부머에게 은퇴를 위한 충분한 자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자산의 많은 부분이 주택이라는 문제점(Lusardi & Mitchell, 2006; Kelly & Harding, 2004를 백은영, 2011에서 재인용)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자산구조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 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문화적 욕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교육수준은 24.8%가 전문대졸 이상, 고졸이 44.0%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보였다. 그에 따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 또한 높을 것으 로 전망된다. 이들은 대형스포츠 이벤트와 대중문 화의 확산을 경험한 세대(삼성경제연구소, 2010)로 서, 새로운 자아를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욕구 표 출과 활동적인 노후생활의 욕구가 클 것이다. 특히 노후소득이 보장된 베이비부머 들은 금전과 시간 이라는 소비자원을 모두 보유한 유력한 소비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들은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소비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뉴시니어' 로 지칭되며, 미래 실 버시장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갖게 한다.

베이비부머세대는 가족관계 및 부양과 관련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중간에 '낀 세대'의 특성을 보인다. 이 세대는 전통적인 가족중심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세대의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는 높지 않은 '일방적인 부양 제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정경희, 2012). 또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시기도 '결혼할 때까지'로 생각하는 비율이 41.5%로 가장 많아, 성인자녀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정경희, 2010).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해

야 할 가능성이 높아 그 부담이 클 것이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자녀, 부모 등모든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비율이 전체인구보다낮게 나타나(통계청, 2010)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와 유대관계가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가 처해있는 중년기는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시기인 만큼, 부부갈등의 발생빈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처기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부부갈등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갈등이라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즉,은퇴와 재정적 문제, 그리고 가족문제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신연희 외, 2010).

반면 서울대 노화·고령 사회 연구소(2011)는 베이비부머들이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며, 부모나 자식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손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모임 등 사회참여활동에 참여도가 높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그들의 노후 또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노인들과 달리 베이비부머들은 다양한 영 역에서의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베이비부머 3,027명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9.4%가 현재 삶 에서 여가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 때 여가를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베이비부머세 대가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과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노 후에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을 시사한 다. 한편 이들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은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취미생활(42.3%), 소득 창출을 위한 일 (18.8%),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16.8%), 종 교생활(9.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 (7.5%)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정경희 외, 2010)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

참여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전망이 다양하나, 본인이 부모부양과 자녀지원을 모두 해왔던 현재보다는 점차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노후생활에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과 동시에 교육수준이 높고 활동적인 노인들의 사회적 욕구와 활동이 높아질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내의 베이비부머 관련 연구들은 베이비부머의 현황을 기술하면서 이들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이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베이비부머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은퇴에 따른 문제의식이나은퇴준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과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선행연구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화현상에 긍 정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Rowe, & Kahn, 1998) 기존의 노화 연구들은 노년기의 쇠퇴를 전 제하고 그에 대한 적응을 강조해온 반면 노년기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는 일련의 견해들이 있다. 성 공적 노화의 개념이 시작된 것은 1986년 미국 노 년사회학회에서 'Successful aging'이 소개된 것이 계기로서, Rowe 와 Kahn의 성공적 노화모델은 기 능의 쇠퇴에 적응하기 이전에 그 기능을 유지하도 록 노력하고, 축소된 사회관계에 적응하기보다 적 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적 역할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노화 에 대한 관점과 대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성혜영 과 조희선, 2005). 이들은 실증연구를 통해 나이가 들수록 유전적 요인보다 라이프스타일이나 삶의 태도, 식습관 등의 요인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즉, 성공적 노화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Baltes 와 Baltes(1990)의 SOC 모델(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은 노화에 따른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하며, 상실한 것을 보상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Ryff(1989)의 성공적 노화이론은 생애주기적 발달이론, 개인 성장의 임상적 이론, 긍정적 정신건 강이론 등을 통합한 것으로(정순돌, 2007), 성공적노화의 개념을 생애주기 측면에서 노인의 현재 뿐아니라 과거, 미래의 모습으로 측정하며, 노년기의모습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개념 등에 대한 연구 (박경란 외, 2002; 성혜영 외, 2002; 강인, 2003)가 시작되었다. 김미혜와 신경림(2005)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성공적 노후의 개념을 적용할 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고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성공적 노후의 유형과 구성요소, 영향요인 등을 밝히는 연구(홍현방, 2005; 김미혜 외, 2006; 윤현숙 외, 2006; 김미령, 2007)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후준비가 중년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중년기의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중년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안현선 외, 2009; 배문조, 2011)이 일부시도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노인과 노년 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정의, 구성요소, 영향요인 등을 밝히기 위한 양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베이비부머가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는 이들의 세대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노인의 인식과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년기로 통칭되던 집단과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세대

적 특성과 이들 집단 내에서 개인적 경험의 차별 화를 밝히기 위해 질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베이비부머들이 앞으로 노년기를 맞이하여 생각하고 있는 성 공적인 노화란 어떤 것이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이고 구 체적인 인식과 실천을 다루고자 하는 연구로서 질 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부터 1963 년 사이에 출생한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인의 연구자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 집하기 위해 후기에는 초기대상자와 거주지역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나는 대상자들을 선정하였으 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남녀의 인식과 대처에 대 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두 쌍의 부부를 포함시 켰다. 사례모집과정에서 다양한 소득수준과 은퇴 여부를 고려하여 접촉하였으나, 은퇴자나 소득수 준이 낮은 대상자와 접촉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면 접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도 이혼이나 은퇴로 인한 준거집단과의 경제적 수준 차이, 경제적 상태 등 사적인 문제에 대해 상세하고 솔직한 진술을 피하 는 사례가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베이비부머 중에 서도 주택을 소유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 움이 없는 중산층 위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란 일정수준의 소득과 교육수준, 직장과 주택을 소유한 집단으로(홍두승, 2005), 대체로 중간계급(경영관리직, 전문직 및 기술직 종사자)과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도시자영상인과 농촌 자영농)가 이에 속한다(신광영, 2004).

또 생활양식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수 있고 체면치례할 만큼 교제도 하며 여름 휴가를 다녀올 수 있고 문화적인 생활도 어느 정도 즐기고 있는 집단"(한완상, 권태환, 홍두승, 1987)으로 규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인을 제외한 9인의 대상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가구주가 기업체의 관리직, 전문직 및 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구주가 실직한 이후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1인의 경우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자녀의 대학교육을 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심층면접은 대상자별로 2회씩 실시하였다. 1차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화란 어떤 것인가?'와 '성공적 노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의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그와 관련된생각과 경험을 스스로 구성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하였다. 면접내용을 녹음하면서 대상자의 특성 및면접상황에 대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였고, 이 내용은 다음 면접의 질문에 반영하였다.

1차 면접 후 심층면접 자료를 전사한 녹취록을 검토하였다. 대상자 중 1인은 이혼한 상태였는데, 결혼생활과 가족에 대한 풍부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아 녹취자료 분석 후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나머지 대상자들의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그들의 '성공적 노화 인식'과 '노후준비'에 부모의 양육방식을 비롯한 어린 시절의 가족배경, 결혼 후 현재까지의 가족생활, 일 경험 등이 간간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였다. 즉,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님의 영향에서 부터 결혼 후 부부관계, 자녀양육의 경험, 일 경험, 자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현재의 일상생활, 부모 및 시부모의 노후모습 등이 성공적 노화 인식에 대한 배경과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면접에는 성공적 노화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 및 과거의 경험과 생활, 그리고 미래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가지고 면접을 실시하였다. 2차 면접과정에서 일부 대상자들은 성

공적인 노화에 대한 인식을 가족 배경이나 자신의 성격과 성향 등과 스스로 연결시키면서 자신이 규 정한 성공적인 노화 인식에 대한 개념을 해석하기 도 했다.

녹취자료는 대상자별로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 하였다. 이는 면접내용이 먼 과거로부터, 현재, 미 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친 개인의 역사이 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는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대상자별로 반복해서 드러나는 주요 내용들을 추 출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거쳐 자료 변형의 세 가지 측면인 기술과 분석, 그리고 해석 으로 작성하였다. 이 방법은 Wolcott(1994)가 발전 시킨 것으로 사례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분석단계에서는 기술 단계에서 소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강조하고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 해석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축 적된 자료를 변형하고, 자료로부터 추론을 끌어내 는 방식이다(조흥식 외, 2010). 이 방법에 준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중산층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준비에 대한 면접 대상자들의 사례를 각각 기술하였고,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대조적인 사례를 중 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들의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특성 의 배경이 되는 경험과 인식으로부터 추론하는 논 의를 전개하였다.

2. 면접참여자들의 특성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총 10명으로 남성 3명, 여성 7명이며, 이들 중 임모씨와 박모씨, 최모씨와 홍모씨는 각각 부부이다. 출생연도는 베이비부머세대 중 나이가 가장 적은 1963년생부터 가장 많은 1955년생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거주지는 서울과 대구광역시, 전북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로 다양하다.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대학생이며, 임모씨 부부

의 장녀와 최모씨 부부의 아들, 그리고 정모씨의 두 딸들은 직장인이다. 이들 중 자녀를 결혼시킨 대상자는 정모씨가 유일한데, 두 딸 중 차녀가 기혼자이다. 한편 오모씨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으며 현재 남편과 단 둘이 거주하고 있다. 유모씨와 오모씨는 결혼 전 시부가 작고한 상태였으며, 임모씨와 오모씨의 경우 친정부친이 성장기에 작고하였다. 진모씨는 결혼과 동시에 시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남편의 전근으로 주말부부의 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시아버지와 단 둘이 지내고 있다. 임모씨 부부의 경우 차남인 남편이 생활력이 없는 장남을 대신하여 어머니의 생활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그 외의 대상자들도 이미 연로한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노후를 지켜보면서 부모의 건강과 여생에 대한 걱정이 많으며, 생활비 또는 병

원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직업경험으로는 대졸 학력을 반영하듯 여성 2명이 전직 교사였으나 각각 육아로 중단한 경험이 있으며, 또 다른 대졸자인 임모씨는 성적이 뛰어났던 자녀들을 엄마가 직접 지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딸의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한후 16년간 수학과외교사로 직장인 못지않은 소득을 올리는 한편 밤에 일하는 부담을 계속해왔다. 엄모씨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38세에 뇌출혈로 중대한 고비를 넘기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보험설계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우연히 직업으로삼게 된 중도취업자이다. 오모씨는 전문직여성을 꿈꾸던 중학교 때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꿈이 좌절되고 뜻하지 않게 농부인 남편과 결혼하여계속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힘든 농사일을

〈표 1〉면접참여자의 특성 (N=10)

이름	연령	결혼지속	거주지	배우자(연령,직업),자녀(연령)	본인의 교육수준,
(성별)	(생년)	기간	(성장지)	월평균가계총소득(만원)	현직(전직)
유모씨(여)	54	27	서울	남편(56, 은퇴후 3년 계약직), 1남1녀(24, 22),	대졸,
	(1958)			450	주부(전직 교사)
임모씨(여)	55	29	대구	남편(57,전문직), 2녀(25, 23)	대졸,
	(1957)	29	(서울)	900	주부(전직 과외지도)
박모씨(남)	57	29	대구 대구	부인(55,주부), 2녀(26, 24)	대학원졸, 교수
	(1955)	2)	(서울)	900	
최모씨(여)	54	29	서울	남편(56, 관리직), 1남(27)	 대졸, 주부(전직교사)
	(1958)	29	(경기)	300	에 글, 기 기(권 국교(기)
홍모씨(남)	56	29	서울	부인(54, 방과후교사), 1남(27)	대졸, 회사원
	(1956)	29	7 T E	300	에 글, 커 Y 근
한모씨(여)	55	26 서울	서운	남편(57, 무직), 1남1녀(25, 16)	대졸, 주부
	(1957)		200	-112, 11	
엄모씨(여)	49	24	대구	남편(49,자영업), 1남1녀(22, 21세)	고졸, 보험설계사
	(1963)	24	(경북)	400	工 = , 工 = 三 // / /
오모씨(여)	57	33	전북,	남편(62, 농업), 자녀 없음,	중졸, 농업
	(1955)	33	익산시	300	о е, о н
진모씨(여)	50	29	전북,	남편(56, 관리직), 2녀1남(26,24,21세)	대졸, 주부
	(1962)	29	전주시	450	네크, 기기
정모씨(남)	57	33	전북,	부인(53, 보험설계사), 2녀(31, 29세)	전문대졸,
	(1955)	33	전주시	500	은퇴(전직 군인)

60세까지만 하고 싶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을 가지 고 있어 갈등하고 있다. 한모씨는 전직 승무원으로 결혼 후 7년 동안 직업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친정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외환 위기 직후 남편 이 실직한 이래 변변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자신 이 영어개인지도,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등으로 가 계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으며, 현재는 연로하신 친 정어머니와 동거하며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일 부 받고 있다. 그러므로 진모씨를 제외한 여성 대 상자들이 직업 또는 직업에 준하는 일을 수년간 계속해 왔고, 일과 가사노동 또는 자녀양육과의 갈 등을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일, 그 리고 가족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성찰을 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일의 경험과 그로 인한 갈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후 삶을 일과 관련시켜, 그리고 노후에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하고 싶은 활동과 관련시켜 생 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남성 대상자 3인은 각각 회사원과 교수, 전직군 인으로 남성 베이비부머의 최대 관심사이자 사회 적 이슈인 은퇴에 대해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회사원인 홍모씨는 이미 전직과 실직을 경험 했으며, 지금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서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교수인 박모씨는 다른 직업인에 비해 다소 늦은 37세에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정년연령 이 65세인, 매우 드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 년 후에도 대중강연, 저술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은퇴에 대한 스 트레스가 없다. 또한 정모씨는 전직 군인으로, 정 년연령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현재는 배 움터지킴이 자원봉사로 자신의 용돈을 해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IV. 연구내용

1.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면접참여자들은 성공적 노화를 건강한 노후, 하고 싶은 취미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삶,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노후,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삶, 사회봉사 및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삶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 건강한 노후

건강은 면접참여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한 성공적 노화의 가치였다. 잘 늙는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노후 건강'은 지극히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이유와 배경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임모씨의 경우 사회적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딸들이 결혼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이 '아이 돌보는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손자녀를 돌보이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자신 이 건강해야 한다'고 노후 건강의 의미를 딸들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사례 참고).

반면 홍모씨와 한모씨의 경우 노후건강의 중요 성을 경제적 이유에서 찾고 있다. 홍모씨는 '노후에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는 노후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할 수 없었던 현실에 비해 건강관리 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게 '건강한 노후'는 부족한 노후 경제력을 보완 하는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사례 참고). 또한 정모씨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시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지 금은 '자신이 원하는 생활' 즉, 해외여행이나 타지에 거주하는 딸들을 보고 싶을 때 가보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운동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모씨) 애들이 진로를 잡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쟤네들은 그만 두진 않겠구나... 결혼한다고... 쉽게'. 그러다보니까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쟤네들이 일을 하면 사회적 활동을 충분히 하도록 내가 애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이런 생각을.. 응, 딸들이 성장하면서점점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좀 못 맡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모씨) 원만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돈도 돈이 지만 일단은 건강하게 있어야 되요. 노인 되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파서 들어가는 비용이게 큰데... 나는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건강... 정말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살다가 가면 제일 좋겠다...

2)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노후

면접참여자들이 건강 다음으로 성공적 노화의 의미로 들은 것은 '경제력'이었다. 이들이 언급한 경제력은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부터 '가족의 문화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기반' 까지 편차가 컸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들의 현재 경제력의 차이나 및 노후에 예상되는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홍모씨 부부와 한모씨의 경우 지금까지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했고, 곧 닥칠 은퇴 후 소득도 충분치 않으므로 상황에 맞추어 규모를 줄이는 것을 대책으로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현재 소득이 있고, 남편의 정년이 65세이며, 은퇴 후 소득원도 이미 확보한 임모씨는 노후 경제적 수준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사례 참고).

한편 최모씨와 오모씨는 '잘 늙는다는 것'을 '욕

심을 버려서 편안해지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이 의미하는 '욕심'은 물질 적, 경제적 욕구와 관련된 것인데, '사소한 욕심' (오모씨, 사례 참고)부터 '의식주생활의 규모를 줄 이고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것'(최모씨, 사례 참고)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거론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생각하는 '잘 늙는 노후'는 결국 물질적 욕구를 버 리고 노후의 경제력에 맞추어 사는 소박한 삶이다.

(임모씨) 경제적으론 좀... 넉넉해서 음... 내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가족단위 문화생활이나... 그런 거에 지장을 안 받을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면 일단은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내 행동에... 행동반경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망설이는 일, 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최모씨) 앞으로는 인컴도 줄어들고 체력도 저하되니까...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것, 규모 같은 것을 좀 줄이는 것, 예를 들어서 생활물품 같은 것도 전에는 10가지를 썼으면 지금은 8가지로 줄이고, 주생활도 전에는 30평 단위가 최적의 생활이었으면 노인이 되면 한 20평대 좀 규모를 적게해가지고 생활을 해야 덜 부딪힐 것 같아요...

(오모씨) 잘 늙는다는 것이 나이 들었어도.. 표정이 편안해 보이고... 나도 나이 먹었을 때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간혹.. 제 생각은 첫째 욕심을 버려야 편안한 표정이 들 거 같아요. 욕심나는 사람은 뭐든 다욕심을 부려요. 하찮은... 사소한 일도 자기 욕심대로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편치가 못하죠.

3) 취미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삶

노후에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여가에 대한 인식도 각자의 여건과 취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지금도 운동, 동호인 모임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임모씨는 남편과 공유할 수 있는 운동이

나 취미를 서너 가지 만들어 부부가 노년에 '오래 된, 묵은 된장 같은 친구'로 지내는 삶을 생각하고 있다. 또 그는 현재 생활환경과 색깔이 다양한 사 람들과 만나는 동호회에서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타인과 같이 하는 동호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노후를 생각하고 있다.

최모씨는 성장기에 배우지 못했던 음악, 그림 등을 배우는 기회를 지역사회의 저렴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생활에 '간간이 끼워 넣는 삶'을 생각하고 있다. 노후에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보다는 집 주변에서, 적은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취미활동으로 보내는 것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성공적 노화'의 단면인 것이다. 남편인 홍모씨 역시 은퇴한 친지들이 구민회관, 구청 등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적은 돈으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자신도 노후에 이러한 곳에서 운동과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진모씨는 중학교 때 미술교사의 권유로 미대 진학을 꿈꾸었으나 부친의 반대로 접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3년 전 암 선고를 받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것으로 그림을 떠올리게 되자 수술 후 바로 수묵화를 시작해때일 수묵화를 그리는 취미생활에 매진하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농촌 노인들의 실상을 보면서 노후에 나태하지 않고 윤택한 삶을 위해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아서 경험하고 소일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사례 참고).

(오모씨) 나이 먹었다고 아무 하는 일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삶에 윤택함이 없을 거 같고... 이양로당에 90세 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그런데 밥만 먹고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으니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내 생활을.. 취미생활을 뭐라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할

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지는.. 그걸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느껴야되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 가족관계를 재인식하는 노후

성공적 노화의 한 유형으로서 부부관계나 자녀 와의 관계, 가족을 포함한 형제, 친척 등 포괄적인 인간관계가 언급되었다.

박모씨는 결혼 전인 20대부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온, 강한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재미있는 노후 삶은 '아내와 인간적이고 신뢰할 수있는 유대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경험을 같이 하는 투자를 통해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사례 참고).

박모씨의 아내인 임모씨 역시 가족에게 헌신하는 노후의 모습을 계획하고 있다. 그녀는 일을 하느라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주지 못한 큰 딸이고2 때 교환학생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후 오래 떨어져있는 딸과의 관계를 아쉬워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에서 딸들의 결혼 후 손자녀를 돌보는 방식으로 딸들을 도와주고 '헌신'하는 노후의 모습을 성공적 노화의 한 단면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홍모씨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된 노후의 삶을 '어렵고, 불편하고, 재미없고,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노후'를 바라고 있다. 그만큼 노년의 생활에서는 부부관계, 배우자의 존재가 더 중요해질 수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또, 그는 친지들의 '잘 살고 있는 노후'에 대해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몫을 잘 해주어 아무 걱정이없어진' 노후로 부러움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자녀를 잘 독립시켜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엄모씨는 성공적 노화의 한 요소로 남편, 자녀와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 한모씨는 가 족 및 형제, 친지들과 '더불어 살기' 등의 가족 가 치를 보여주고 있다.

(박모씨) 몇 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린 결론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망들, 가족 간의 유대, 특히 이제 와이프와의 어떤인간적 그리고 신뢰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에 좀더 많은 투자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또자녀들과의 관계도 또 새로운 투자, 투자라는 건시간을 같이 하는 거, 경험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것들이 가장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같이 있는 거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 평범한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이 앞으로내 삶에 있어서... 지켜야 될 하나의 삶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봉사하는 삶

자신의 노후 삶에서 봉사활동을 비중 있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모씨는 노후에 자존감을 지키기위해 자원봉사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금도노인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경제적으로 미흡해지는 노후생활을 자신의 시간과마음,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완하는 한편,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가능성을 알게 해주고 타인과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례 참고). 박모씨는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가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감동을 느끼며, 자신도 그런 것을 '꿈꾸고 있다'고 하였다. 그 역시 자신의 교직경험과 전공을 살려 '젊은 학생들과 고전을 같이 공부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방식의 봉사활동은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

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노년기의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례 참고). 그러므로 이들에게 노후의 봉사활동은 지금까지 해 온, 잘 할수 있는 일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일의 연속선상에 있는' 삶의 한 방식으로,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이자 자신의 노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모씨) 자원봉사가 사실은 봉사이면서 그쪽에서 나에게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양적으로 채울 수 없는,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60~70대까지, 정신적이라던가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노후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박모씨) 우리가 나이 먹고 할 수 있는 것, 나의 건강만 허락한다면 결국에는 봉사가 아름다운 삼 같아요. 저는 고전을 했잖아요. 고전을 제 2세들한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걸 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니까... 특히어린 학생들한테 고전을 같이 읽을 기회가 있다면 엄청난 삶에 있어서 지혜와 용기와 정신적 자양분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6) 의존하지 않는 삶

잘 늙는 것이 건강하고, 먹고 살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지금까지 못했던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는 삶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차이 나는 것으로, 엄모씨와 진모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은 삶, 짐이 되지 않는 삶'을 '잘 늙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대상자 중 가장 젊지만 각각 뇌출혈, 유방암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엄모씨는 30대에 뇌출혈로 약 1년간 투병생활을 했었고(사례 참고), 진모씨는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를 모시는 '부담'을 평생 동안 지고 있다. '물 한잔도 스스로 떠먹을줄 모르고 수발 받는 것에만 익숙한'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자신은 늙어서 자식들에게 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녀는 노후에 의존하지 않고 베풀며 사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떳떳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공적 노화는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자녀들에게는 '주는엄마', '힘이 되는 아버지'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다.

(엄모씨) 저는 애들을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안 아주는 그런 엄마로 살고 싶지, 애들한테 전혀... 경제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의지는 안 하고 싶어요... 지금도 이렇게 저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바쁘고, 부모한테 자주 못 뵙고, 금전적으로나안 되잖아요? 그게 현실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이 더 없어지리라 전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내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자녀하고 부모간의 사랑이라는 거는 유지가 안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2.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

대상자들이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건강을 위한 운동, 취미생활, 경제적 준비 등이었고, 특징적인 사례로는 노후취업을 위 한 능력 갖추기(한모씨), 마인드컨트롤(박모씨) 등 이 있었다. 그러나 준비의 정도와 그에 대한 본인 들의 해석은 개인에 따라 매우 달랐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노후준비의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운동과 식생활관리를 실천하는 건강관리

이들이 노후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한 건 강을 위해서는 '운동'과 '건강을 신경 쓰는 식생활' 을 실천하고 있었다. 부부대상자인 임모씨 부부와 엄모씨, 진모씨, 정모씨 등 5명은 부부가 같이 등 산을 꾸준히 하고 있다. 오모씨는 40대에 들어서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잡히자 시간개념이 없는 농 촌생활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삶'을 위해 시작한 규칙적인 아침 등산으로 50대 후반이 된 지금은 그 효과를 몸으로 톡톡히 느끼고 있다.

진모씨는 3년 전 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식품이나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먹기보다는 '무엇이든 맛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엄모씨는 농약을 치지 않은 채소 를 직접 길러 식탁에 올리고 있다. 오모씨는 소식 과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한 후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녀는 시골에서 농사일 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어 다른 건강관리를 하거 나 음식에 신경 쓰기 어려우므로 절제하는 식습관 으로 식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인 것이다. 오모씨와는 대조적으 로 임모씨는 '좋은 것을 먹고 느끼는 것이 사는 재 미'이기 때문에 스스로 '먹는 것에 올인한다'고 할 만큼 식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식사 준비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노 후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은 유 사하지만 개인의 여건과 취향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저축하고 투자하는 경제적 준비와 절약 하는 생활

경제적 준비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임모씨는 노후에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을 위한 고정적인 소득원으로 계획해온 임대수입을 몇 개월전 실천에 옮겨 이미 임대수입이 있는 상태이다. 유모씨는 결혼 초부터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필요한 때 써야 된다'는 경제관을 가지고, 아끼고 저축하지 않았음에도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집값이올라 어렵지 않게 집을 늘리고 자산이 불어나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반영하듯 남편의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노후 경제적 준비의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미 은퇴한 정모씨는 30대 부터

노후준비의 1순위를 '경제적인 준비'로 생각하고 실천해왔다. 공무원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을 준 비해왔고, 치매나 암에 대비하는 보험에 가입해 자 녀에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 으려고' 준비를 많이 한 상태이다. 그에게 '경제적 문제가 없는 노후'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재미 있게 살 수 있는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이자 조건이었다(사례 참고). 상대적으로 젊은, 40 대 대상자 엄모씨는 자신의 직업을 반영하듯 연금, 보장성 보험 등을 자신과 남편, 그리고 자녀 몫으 로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자 중 유 일하게 삼남매를 둔 진모씨는 두 명의 자녀가 취 업하자 '월급의 일부'를 받아서 남편의 저축에 보 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소극적인 방식이기는 하 나 최모씨는 노후 경제력에 맞게 생활규모를 줄이 는 것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대상자들은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미래의 기대소득원에 맞게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모씨) 제일 먼저 경제적인 문제, 후배들한테도 '퇴직을 하는 순간까지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라. 너희 건 너희가 챙겨야할 거 아니냐. 연금을 끝까지 해라, 퇴직금 일시불 받지 마라, 받는 순간 부모가 내리 사랑인데 어떻게 안주겠느냐. 그러나 애들이 부모가 해준 만큼 해주지 않는다'요즘 90까지 산다고 했을 때 30년은 내가 스스로,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주고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충고하죠.

3) 노후취업을 위한 능력 갖추기

면접참여자들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 주로 연금, 저축, 투자 등의 방법으로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과 달리 한모씨는 노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녀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남편의 실직으로 자신이 영어 개인지도, 주식투자 등으로 근근이 가 계를 꾸려왔고 아직 고등학생인 둘째 자녀의 교육 이 끝나지 않아 노후 경제적 준비를 전혀 하지 못 했다. 딸이 대학에 진학하면 자신도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생기므로 노후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이다. 즉, 어학, 컴퓨터 등을 더 배워 노인 대상 영어 강습, 관광통역 등 노후에도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생활비와 용돈을 조달하려고한다. 그녀는 취업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여성근로복지공단에 구직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복지관이나 여성회관 등의 영어강사 채용정보를 구하고 있다. 그녀의 경우 지금까지 남편을 대신해 '직업'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조달해온 경험이 있어, 노후생활에 대해서도 '취업'이라는 보다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례 참고).

(한모씨) 선진국일수록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도 점점 복지정책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성화 시키지 않겠나...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취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컴퓨터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복지센터 이런데서 영어 같은 경우는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서 좀 답을 구하려고... 여유가 되면 언어를 더 해서 관광통역이나... 그래서 앞으로 남편하고 나만 살아간다면, 내가 먹을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든지... 자신은 있다고 봐요. 노년 되서도 나는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여가와 자신에게서 찾는 여가

이들이 노후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취미생활은 다양했다. 임모씨와 박모씨 부부, 엄모씨, 진모씨는 등산이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이 자 건강관리의 방법이었다. 자신을 '외향적'이라고 말하는 임모씨는 점차 자신의 시간이 많아지자 나이 들어서도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노후에 남편의 은퇴, 신체적 능력 등 변화와 나이에

걸 맞는 방식으로 부부가 같이 여가를 보낼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부부가 제미 있게 '노년의 친구'로 사는 삶을 위해 공유할수 있는 활동을 찾고 있다.

또한 미술교사에게 인정받았던 실력을 살려 매일 수묵화를 그리는 취미생활을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발전시키거나(진모씨), 반대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예술이나 운동을 노후를 위해 시작하고 싶다는 일부 대상자들(최모씨, 홍모씨)은 노년기를 지금까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여가유형을 준비하고 있다.

5) 새로운 역할과 관계의 준비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를 말할 때 건강, 경제적 준비, 시간을 보내는 활동 등이 거론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조금 다른 '준비'로는 '노화를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는 준비'(박모씨), '청소년의 멘토'(임 모씨), '나눔과 교류'(최모씨), 새로운 인간관계(정 모씨) 등이 거론되었다.

박모씨는 '노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에 맞춰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노후에는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노화된 생각, 뒤처진 생각일 수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젊은사람들의 판단력이나 행동을 인정해주고 대화할수 있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노후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사례 참고).

임모씨는 16년 간 학생을 가르친 경험에서 축적된 눈높이 대화와 소통능력, 그리고 자신의 단순하고 솔직한 성격을 살려 멘토가 필요하거나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읽어주면서 코칭해주는 청소년 멘토의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최모씨는 노인이 되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 려면 '스스로 충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금도 책을 통해, 좋아하는 발표회나 전시회 를 찾아가 보고, 듣고, 만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사회적 준비' 를 들고 있다.

이미 은퇴한 정모씨는 은퇴 전 인간관계와 비교하면서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서 만난교사들이나 운동을 같이 하는 후배들처럼 현재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투자하고 유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사례 참고).

이들 사례는 노후에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생활의 폭이 줄어들면서 달라질 수 있는 자신의 역할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준비의식을 보여준다.

(박모씨) 내가 70대 될 때, 80대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스스로 쭉 맞춰간다 그럴까? 준비해간다 그럴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모씨) 퇴직하고 나면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가 점점 줄어요... 후배들이 부르면 웬만하면 나가죠. 한번 두 번 '나 바빠'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를 안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부 선생님 아홉 분하고 테니스 모임이 있어요. 운동하는 그 자체로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음료수 먹고, 한 달에 한번 씩 밥, 술도 나누고... 운동하면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밖에 테니스 클럽 활동을 두 군데 하고 있으니까 교대로 나가면서, 거의 후배죠, 지금은.. 후배들하고 잘은 못 쳐도 운동하고, 대화하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도 해주고... 지금 나하고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특성

성공적 노화에 대한 대상자들의 인식과 노후 준비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서 밝혀 진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의 특성을 제시하고 사례 간 비교의 결과를 대조적인 유형 중심으로 제시한다.

첫째,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자녀에 대한 숙제에서 벗어나 여유 있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유모씨), '바빠서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엄모씨, 정모씨)로 생각하며, 노후 삶을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기대했다(박모씨). 따라서 홍모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건강문제를 제외하고는 '늙는다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 없이 노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공적 노화의 요소 중 1순위는 건강이었다. 이는 정경희(2012)의 베이비부머 대상 조사에서 이들은 노후에 건강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건강'으로 응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 대 관심사가 노후 건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음으로는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노후 '건강'에 대해 부여하는 '보편적인' 의미는 노년기에 건강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신 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경제력도 자녀에게 물질적 으로 의존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독립적인 노후'를 성 공적인 노후로 인식하며, 그 조건으로서 건강과 경제력을 갖추어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으려 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공적 노화의 요소 중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는 상대적으로 젊은 참여자 2인이 언급한 '자녀 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이었다. 젊은 나이인 30 대에 뇌출혈로 약 1년간 투병생활을 하게 되자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을 했던 엄모씨와 결혼 후 계속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3년 전 유방 암 선고를 받았던 진모씨의 경우 중대한 병력이 나 시부모 부양과 같은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노 후부양이나 간병을 자녀에게 맡기지 않으려는 의 식이 매우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후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을 때 자녀에게 의존한다면 부담을 주게 되거나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강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것 이다.

둘째, 성공적 노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는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와 여가 준비, 인간관계 등이 거론되었다. 즉, 이들이 노후를 위해 필요하 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꼽았던 것들과 일관된 측 면들이었다. 그러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필 요성은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그 이유는 '노 화'가 미래의 일로서 중년기에 있는 이들에게 아 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데 비해 노후 준비는 지 금 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장수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보다 '노후준 비'에 대한 인식은 훨씬 구체적이었고, 따라서 자 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를 선명히 인식하고 드러내는 특징을 보 였다.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노후 취업'을 언급한 사례이다. 한모씨는 외환위기 이후 실직한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왔지만, 고 3인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 영어강사나 관광통역원 등으로 취업하려고 계획하고있다. 그녀는 고령화 사회에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에 대비하는 취업준비를 하면 정기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컴퓨터 활용능력

이나 외국어를 배우는 취업준비를 노후준비로 생 각하고 있다.

셋째, 사례 간 비교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보이 는 두 쌍의 부부사례가 발견되었다. 임모씨 부부 는 남편이 65세에 정년퇴임한 이후에도 직업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부인이 지금까지 노후 경제적 준비를 기대수준 정도로 해놓았을 뿐 아니라 자녀교육이 나 여가활동 등의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워한다. 남편인 박모씨가 면접대상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성공적 노후와 노후준비에 대해 '경제적 측면'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른 대상자들과 다른 '독특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투자에도 '능력'이 있는 아내가 알아서 정보를 구하고 고 민하고 준비해놓으면 자신은 옆에서 얘기를 들어 보고 같이 판단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개 념을 '무감각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이는 아내의 노후 준비와 함께 자신도 다른 사람보다 늦은 65 세에 정년퇴직을 하며, 정년 후에도 강연이나 저 술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아내인 임모씨가 균형 있게 계획하고 있는 노후준비 중 중 하나가 '준비된 할머니가 되는 것'도 독특한 유형이다. 그녀는 지금부터 '딸들이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몇 년 간은 손자녀 양육을 맡는 것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로서 기꺼이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자신이 우선 건강해야 하며 주변의 젊은 엄마 들의 육아방식도 귀담아 듣고 있다고 한다.

반면 홍모씨 부부는 지금까지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노후가 불안하다. 남편인 홍모씨는 '경제적으로 대비안 된게 제일 문제'이고, '노후에 모든 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다'고 경제력을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하였다.홍모씨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 경제'에 대해, 현재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도 어떤 일이든 일을 계

속하며 '건강관리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으로 대 응한다. 그에게는 이미 40대에 한 차례의 이직과 두 차례의 해고로 '놀았던' 경험이 있다. 43세 때 의 이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이후 근무했 던 중소기업에서는 경영난과 경제위기로 갑자기 해고당했으며 이후 각각 4, 5개월 간 실업상태에 있다가 현재는 친척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불 안한 노후'에 대해 아내인 최모씨는 경제적으로 는 생활규모를 단순화시켜서 절약하는 생활로 대 응하려 한다. 또 부족할 수 있는 경제력에 대한 바람과 물질적 욕구를 과감히 포기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통해 빈 자리 를 채우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감소하는 노년기에 타인과 교류하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더 위축되고 더 빨리 늙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준 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그 준비과정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요소가 다르고, 그 준비과정과 해법도 다르나 각자의 현실과 상황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 성공적 노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배경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이 거론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유사하나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이유와 배경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그 차이의 배경에는 개개인의 현재의 상황과 대처능력, 그리고 먼 과거의 어린시절부터의 경험과 가족의 영향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과 배경의 차이가 노화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성공적 노화가 노년기 이전의 생활과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가치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백지은과 최혜경(2005), 김미령(2008)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임모씨의 경우 부모님이 한국전쟁 이후 월남한 분들이라 친척들이 없어 오로지 관심이 자녀에게 집중되었던 가족배경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이 결혼 10년 만에 첫 자녀를 낳았고, 그동안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해놓아 '자녀를 잘키우는 것에 대해서 올인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최고의 사교육'을 시킨 부모님의 교육열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 쏟았던 정성 가운데성장하였다.

(임모씨) 두 가지 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육하고, 우리 어머니는 먹이는 것. 늦게 낳으셨잖아~ 올인 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교사를 둘 정도로 계속 시켰어요. 두 번째는 엄청 잘 먹였어요. '건강이 오로지 재산이다'라고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미꾸라지를 고아가지고병에 넣어 들고 다니며 먹였고... 엄마는 또 천상여자니까 요리하는 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건, 정확히 4시만 되면 시장을 가셔서 그날 그날저녁을 만들어서 먹이는 게 오로지 낙이었어요. 그게 인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이 되어있더라고, 언니들도...

아직 미혼인 딸들이 결혼하면 손자녀를 돌보아주겠다고 지금부터 결심하고 있는 그는 자신의결정의 배경도 '가족력'으로 해석하였다. 자녀에대한 애착이 강했던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올인하는 게 너무 지겨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애들한테 더 올인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사춘기때 신경써주지 못한 큰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손자녀 양육을 맡아줌으로써 딸들을 지원해주려

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16년간 일을 했던 것도 젊었을 때부터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인데, 그러한 성향을 가족의 기질로부터 찾고 있다. '개성상인이었던 아버지의 DNA'와 강남에 살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언니들의 분위기를 쫓아갔다는 자신의 성향을 '보고 배운'가족력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므로 임모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으로 가족애, 교육열, 물질적으로 풍요한 생활 등을 경험하였고, 결혼 후에는 언니들을 모델 삼아자녀 교육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확고한 '꿈'이 있었고, 그가 원하는 미래 노후의 모습도 이와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 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는 가족의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경제력을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측 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다고 한 홍모씨에게는 초등학교 6 학년 때 갑자기 실직한 부친이 이후 변변한 돈벌 이를 하지 못했던 배경이 있다. 또 성장과정 내 내 부친에 대한 원망을 간간이 아들에게 한탄했 던 모친에 대한 기억이 가장이 된 이후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부담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부친의 '경제적 무능'과 자신의 두 번의 '해고'와 '실직'상황은 그에게 노후에 닥칠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 였다. 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러한 이유에서이다. 자신의 '잘사는 노후'에 대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자녀 걱정 할 여유도 없다'면서도 '부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주변 친지 3인에 대해 '자녀들이 잘 풀려서 아무 걱정이 없더라'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부양책임이 끝나는 것을 '원하는 노후', '걱정 없 는 노후'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편 홍모씨의 아내인 최모씨는 노후에 부족

한 경제력을 교류와 봉사활동으로 채워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그의 교육환경 과 교사 경험, 그로부터 파생된 '교육에 대한 갈 증' 등이 있다. 그의 부친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셨으며, 친척 중에도 교사가 많아 어릴 때부터 '교직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도 항 상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훌륭한 모델'로 제시했 고, 덕분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다. 대 학졸업 후 아버지가 힘쓴 덕에 그는 전공하지 않 은 영어과 교사가 될 수 있었으나 결혼 6년 만에 육아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비전 공자로서 한계를 느껴 사표를 냈다. 40세 때 자 궁절제수술을 받았던 위기와 좌절감을 때 마침 성당에서 성서봉사자를 하게 되면서 20대부터 80 대에 이르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극복했다. 또 교직경험을 살려 장애학교에서 보 조교사로 일한 경험, 46세 때 한미교육위원단에 서 일한 경험, 그리고 48세에 모 대학의 한국어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52세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 한국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들을 통해 그 는 중년기에도 늘 젊은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고, 이 과정에서 행복 감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최모씨는 같은 상황에 서 남편에 비해 부족한 노후를 채워 줄 다른 방 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그 방도는 청장년기 의 교류, 소통, 나눔의 경험과 행복한 기억으로부 터 찾게 된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성공적 노화 인식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인 노후준비에 대한 진술에서 나타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들이 자신의 노후에 접근해가는 방식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화와

그를 위한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친 정부모나 시부모, 형제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 들의 모습에 자신을 투사시켜 노후의 모습을 그 려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가 왜 이러한 모습이며, 나는 노후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따라서 나는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후의 문 제들을 부모, 형제, 자녀와의 '관계'로 풀어나갔 다. '교육에 올인했던 엄마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어느 날 발견'하며 딸들에게 올인하지 못했던 아 쉬움으로 딸들의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임모씨와 대조적으로 언니의 아이들의 양육을 맡아 자신만 의 생활을 하지 못했던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은 '내 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손자녀를 돌보지 않겠다고 하는 유모씨의 경우 각각 자신의 '할머 니 역할'에 대한 결론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딸과의 관계에서 풀어나 가고 있다. 또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를 잘 늙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모씨는 스스로 노 후준비를 할 것이지만, 자녀가 일할 경우 '손자녀 를 돌보는' 자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나, '남편에게 아버님처럼 자식에게 부담을 주며 살 지 말라고 했다'는 진모씨의 경우도 자녀에게 의 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를 부모, 자신, 자녀, 손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대상자들이 자신의 노후를 부모, 형제로부터의 영향과 자녀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찾는 유형은 백지은 등(2005)의 연구에서독립과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서구 가치에서의 성공적인 노화와 달리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에는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이나 부양원이 중요하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수 있다.

반면 남성들의 경우 부모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 자녀에 대해서도 '성인이 된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소중한 관계'(박모씨, 정모씨)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노후의 한

모습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앞으로 독립하거나 결혼할 자녀에 대한 자신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모습을 제 시하지 않았다. 홍모씨의 경우도 가까운 친지들 이 자녀들을 다 독립시킨 노후에 대해 부러움을 비쳤으나, 정작 직장인인 아들의 직장생활이나 경제적 독립, 결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원하는 노후 의 한 단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배문조(2011)의 연구에서 중년층이 성공적 노후생활의 요소로 자 녀의 성공과 출세를 중요하게 여겼던 결과나 백 지은과 최혜경(2007)이 성공적 노후생활의 구성 요소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을 잘 키워 성공 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들은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를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 들이고, 자신 또한 그들과 공유했던 경험, 감정이 나 그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서 과거와 현재의 나 를 연결시키는 '관계적, 맥락적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성들의 특성은 은 퇴 후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남 성들의 일반적인 패턴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

둘째,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준비된 할머니'가 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한 부분이라는 임모씨를 비롯하여 다른 두 명의 여성들은 자녀가 육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후의 돌봄노동을 자녀에 대한 사랑을실천하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여기에 두 명의남성대상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지만, 남자들이 혼자 오래 사는 것을 걱정한다'고 함으로써 노후에 부부가 함께 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정모씨는 부부가 함께 하는 삶의 필요성을 '먹고 사는 생활'에서 찾고 있다. 현재 자신의 살

림능력이 겨우 라면 끓이고 청소나 설거지 정도 이므로 노후에 자신이 혼자되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부인이 함께 늙어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여성들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남편의 부양자이며, 돌봄노동을 계속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온 성별분업은 세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은 길어진 노후를 사회활동 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사회활동의 내용이 선택 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보다 발전된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들이 노후 삶에서 봉사활동과 취미활동, 종교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베이비부머 세 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에는 노인의 외부활동, 사 회활동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역사회 여가활동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친지들과 집 근처의 복 지관, 노인대학, 대학교에 다양한 취미활동, 운동, 학습에 이르기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정 보를 교환하거나 인터넷 검색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노후를 '방안 에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시간 소일' 이상의 의미로 발전될 수 있는데, 최모씨와 같이 노후의 봉사활동이 감소된 사회관계를 채워 주고, 그로 인해 노인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 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외부를 선택한다'는 의미 에서 자원봉사를 성공적 노화의 한 요소로 보는 경우이다. 이 사례의 경우 주변의 환경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노후를 계획하 고 있다는 점에서 Baltes 와 Baltes(1990)가 제안 한 성공적 노화 모델, 즉 성공적 노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정으로 보는 SOC 모델을 지지 해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노년기에 감소된 능력 을 아쉬워하기보다 주어진 능력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보유한 기술을 최적화하며, 상실한 것 을 보상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향후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특성' 을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특성은 노년기의 생산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노년기의 생산성은 노인이 되어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개인과 가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정경희 외, 2002), Baltes 와 Baltes(1990), Rowe와 Kahn(1998)가 제시한 성공적 노화 개념을 구성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는 노년기에도 여전히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과거의 노인세대에 비해 활동적으로 노년을보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중산층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적으로 안정 된 노후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임모씨, 정모씨 사 례의 경우 '가족이 같이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의 여유 있는 삶 을 기대할 정도로 노후의 안정적 소득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 사례와 같이 은퇴 후에도 여 유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간 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계층이 될 것이다. 이러 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금전과 시간이라는 소비자 원을 모두 보유한 유력한 소비층인 'VIP 베이비 부머' 세대 또는 젊음, 향수, 자아라는 소비활동 의 동기를 가지며 종전 노인과는 다른 소비행태 를 보이는 '뉴시니어' 세대(삼성경제연구소, 2011)로 지칭한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유력한 소비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 노후 취업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해 취업 가능한 직종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부족한 노후 경제력에 대해 베이비부머들은 노후 에도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의사와 계획으로 대비 하고 있는 점도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른 특성으 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베이비부머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부부가 일상생활과 취미활동을 같이 하며 노후를 의지하는 생활을 하면서 전 생애주기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대상자 2인이 노후에 부부가 같이 하는 삶을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대상자인 임모씨, 엄모씨, 진모씨가 부부 공동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가치가 부부 중심의 가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두명의 자녀를 둔 이들이 자녀를 독립시킨 후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는 방식은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립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서 지적된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첫째, 향후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노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노인취업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연금수급자의 연금 운용과 유지정책을 장기화된 노년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주부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 등 유연한 연금제도의 신설과 급여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사회활동 욕구의 증가는 지역사회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가 훨씬 길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가활동을 하면서 건강관리의 효과도 얻을 수 있거나 여가활동과 동시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 부부공동형 여가, 세대통합형 여가활동 등 복합적 활동과 개인차를 반영한 수준별, 단계별 교육 강좌 등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부머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경제적

준비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 부관계나 가족관계로 나타나지만 남성들은 실제 적으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등 관계적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때 노년기 의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 대한 교육과 연습이 필 요하다. 즉, 자녀를 독립시킨 베이비부머들이 새 롭게 부부관계를 재정립시킬 수 있도록 대화의 기술, 성인자녀와 손자녀 등 다양한 세대와 어울 릴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 등 긴 노후를 위한 장 기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고 또 베이비부 머들도 가족관계가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 니라 새롭게 정립하고 배워나가야 한다는 의식으 로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 본 연구의 대 상인 중산층 베이비부머들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 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의 성 공적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사회의 분위기에 '노후의 사회적 준비' 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과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은 그리 어둡 지 않았다. 또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적극적 인 인식은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기존의 우려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특히 노후취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사례는 양 적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수자의 노후생활계 획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또 노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사회활동을 선택하여 생산적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준비의식도 성공적 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 이들이 비교적 노후를 잘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긍 정적 해석과 함께 노년기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 해 아직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과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본 연구의 참여자의 수집과정에서 지역과 교육수 준의 차이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집 을 소유하고 있고, 1명을 제외하고는 남편들이 아직 일하고 있는 중산층 베이비부머인 것에 기 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고 생활수준이 유사한 사례의 한계를 고려할 때 교 육수준과 소득, 자산수준이 낮거나 이미 퇴직한 남성 베이비부머에 대한 심층면접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쌍의 부부참여자 중 각각 아 내가 남편에 비해 더 사실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해주었다. 그러므로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면 동일한 상황에서의 남녀의 인식의 차 이와 접근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06.
- 2) 김미령(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1), 33-48.
- 3) 김미혜·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4) 김미혜·신경림·최혜경·강미선(2006).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한국노년학, 26(1), 91-104.
- 5) 류애정(2010). 베이비붐세대 지원을 위한 사회 보장적 방향성 모색 : 일본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및 복지 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75-101.
- 6) 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 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7)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 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 구. 한국노동연구워.
- 8)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

(1), 45-61.

- 9) 백은영(2011). 베이비부머의 은퇴 준비와 준비 유형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7(2), 357-383.
- 10) 백지은 · 최혜경(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11) 삼성경제연구소(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주요국(미·일) 비교 포 함-. 연구보고서.
- 12) 삼성경제연구소(2011). 뉴시니어 세대의 3대 키워드, SERI 경영노트(2011.3.24).
- 13) 서울대 노화·고령 사회 연구소(2011). 한국 의 베이비부머 세대 연구.
- 14) 석재은 · 이기주(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 화동특성별 유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 전 략.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및 복지재정 DB학술대회 자료집, 25-74.
- 15) 성혜영·유정헌(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한국노 년학, 22(2), 75-93.
- 16) 성혜영·조희선(2005). 성공적 노화모델 연구: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한 국노년학, 26(1), 105-123.
- 17) 신광영(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서울 : 을유문화사
- 18) 안현선·김효민·안진경·김양희(2009). 중년 기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자원경영학회지, 13(3), 137-155.
- 19) 정경희(2010).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1-22.
- 20)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 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 (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21)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 생활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87, 40-49.
- 22) 정순돌(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23) 조선일보, 베이비붐 세대 절반이 국민연금 한푼도 못탄다. 2011. 11. 28.
- 24) 조선일보, 미리 설계하면 장수는 리스크 아 닌 축복. 2011. 12. 31.
- 25)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Johm W. Creswell 저(2010).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26)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27) 통계청(2010).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보 도자료). www.kostat.go.kr.
- 28) 한경혜(2000). 신 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 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29) 한경해(2010). 한국의 베이비부머 : 라이프코 스와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 2010년 한국노 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30) 홍두승(2005).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 출판부.
- 31) 홍성희·곽인숙(2011).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유배우노인 과 무배우노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 학회지, 49(4), 77-91.
- 32) 홍현방(2005). 생산활동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Baltes, P. B.,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4) Kelly, S. & Harding, A.(2004). Funding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mmers, Agenda,

11(2), 99-112.

35) Lasardi, A. & Mitchell, O.(2006).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y,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Center, Working paper.

- Rowe,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37, 433-441.
- 37) Ryff, C. D. (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34-55.

■ 투 고 일:2012년 10월 1일

■ 심 사 일: 2012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11월 14일